

코스닥, 거래대금 5~6조 '최저치' 전기차 수요·2차전지株 부진 영향

밸류업 정책 효과 미미, 코스닥 소외 전기차 수요 부진 등 코스닥 지수 ↓ "활성화 위해 부실기업 퇴출" 목소리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코스닥 투자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이 밸류업 정책의 수혜를 얻지 못한 데다 전기차 시장의 수요 부진으로 시총 상위인 2차전지주들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코스닥의 거래대금은 5조~6조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전날 코스닥 일일 거래대금은 6조7212억원으로 집계됐지만 지난달 26일(5조6332억원)과 29일(5조3692억원)에 5조원대로 떨어지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10조원을 넘어섰던 것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크게 떨어진 셈이다.

코스닥 지수가 부진하면서 거래대금이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900대선까지 올라갔던 지수는 이후 하락 전환, 지난달 말 800선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시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차전지주의 하락이 크게 작용했다. 코

스닥 대장주로 꼽히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연초 대비 각각 86%, 36% 가량 떨어졌다.

또한 지난달 코스닥의 회전율도 1.51%로 전달(1.59%) 대비 감소했다. 회전율은 일정 기간의 거래량을 상장주식 수로 나눈 값으로,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 손바뀜이 활발했음을 의미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에서 성장 모멘텀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주가는 미래에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장 크게 미치는 요소가 되는데 코스닥 시장은 향후 시장을 주도할 만한 기업들이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코스닥 시장은 밸류업 혜택도 누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한 10개사 가운데 코스닥 기업은 에프앤가이드, 콜마비앤에이치, HK이노엔 등 3개사에 불과하다. 밸류업 정책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주주환원 여력이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코스닥 기업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코스닥이 정체된 흐름을 보이자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

해 부실기업을 제때 퇴출시켜 코스닥 시장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거래소도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좀비기업의 퇴출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개선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데다 코스닥시장 본부장(상임이사)에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경욱 상무를 내정했다. 앞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코스닥 상장사들을 만나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거래소는 향후 코스닥 기업들의 성장 단계를 고려한 밸류업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래소의 노력만으로는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되기에 한계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소가 나름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은 정부의 산업 규제 완화, 중소기업 지원 정책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이 얼마나 효과를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첫번째 줄 왼쪽에서 일곱번째), 남기천 우리투자증권 대표(첫번째 줄 왼쪽에서 여덟번째), 조병규 우리은행장(첫번째 줄 왼쪽에서 여섯번째)을 비롯한 우리금융그룹 임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디지털·IB 강한 종합증권사로"

10년 만에 공식 출범 선포 은행·증권 시너지협의회 운영

우리투자증권이 10년 만에 증권업 재진출을 선포하며 공식 출범을 알렸다.

우리투자증권은 1일 여의도 소재 TP타워에서 출범식을 갖고 우리금융그룹 계열 증권사로 공식 출범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투자증권은 '디지털과 IB가 강한 종합증권사'를 표방하며 궁극적으로 '초대형IB'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출범식은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남기천 우리투자증권 대표를 비롯해 지주사 임원 및 그룹사 사장단, 우리투자증권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남 대표는 "우리투자증권 임직원 모두 '원팀'이라고 강조하며 회사가 나아갈 첫 번째 지향점으로 '디지털과 IB가 강한 종합증권사 건설'이라고 강조했다.

우리투자증권은 기존 포스증권의 플랫폼 경쟁력과 우리종합금융의 발행어

음 및 기업여신 비즈니스를 초기 사업 발판으로 삼아 IB, S&T(세일즈·트레이딩), 리테일 등 각 사업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IB와 증권IB을 아우르는 그룹CIB체계 구축과 기업 생애주기에 맞춘 종합금융 서비스에 집중해 전 그룹 핵심전략인 '기업금융명가 재건'을 추동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 첫 단추로 은행·증권 간 시너지협의회 운영과 함께 2조원 규모의 계열사 공동펀드 조성 등을 제시했다.

우리투자증권을 향한 우리금융그룹의 전폭적인 지원도 따를 예정이다. 출범식에 참석한 임 회장은 "우리투자증권의 인사·조직·성과보상 등을 그룹 계열사 잣대가 아닌 시장 관점, 증권업준기준에서 다룰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임 회장은 "자본력 확충, 인재육성 시스템, 독자사옥 확보 등 우리투자증권의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높여 자본시장 플레이어로 빠르게 성장하겠다는 게 그룹의 목표"라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WTS 재도입... 표절논란·차별조치 우려

KB증권, 토스증권 유사성 문제 제기 21일 첫 심문기일... 양사 갈등 고조 저작권·디자인 보호 등 쟁점 부각

증권가 내 웹트레이딩시스템(WTS) 서비스 재도입이 본격화되면서 표절 논란, 차별 조치 등의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KB증권이 WTS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가운데 토스·신한투자·미래에셋증권 등도 이를 뒤따르고 있지만 지연되는 모습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이 토스증권을 상대로 접수한 부정 경쟁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이 오는 21일로 예정됐다. 앞서 KB증권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토스증권이 최근 정식 출시한 WTS가 자사 서비스와 유사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KB증권의 WTS

'마블(M-able) 와이드'는 6월 접속 고객 44만명을 돌파하는 등 WTS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이후 토스증권도 지난 5월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WTS '토스증권 PC'를 선공개했고, UI(유저 인터페이스)·UX(유저 익스피리언스) 등 화면 구성 요소나 구현 방식이 비슷하다며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향후 절차를 성실히 밟으며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분쟁은 WTS의 '표절 논란'인 만큼 저작권과 부정경쟁방지 여부가 주목된다. 다만 특허·디자인 측면에서는 창작물로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정경쟁방지 측면에서의 구체적 쟁점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오 법무법인바른 변호사는 "창작물로의 보호는 받기 어려워 보이지만

적용 범위 넓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다투 볼 여지는 있다"며 "WTS의 구성 부분이 저작물로 인정받기 힘들고, UI·UX 등의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 자체는 등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지만 디자인이나 구현적인 측면에서 특이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실상 앞으로 양사가 제출할 증거물이 관건으로 보여진다.

WTS는 과거부터 존재했던 플랫폼이지만 모바일 수요가 증가하면서 활용도가 낮아졌다. 이에 다수의 증권사들이 기존 WTS 서비스를 종료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WTS의 접근성·편의성이 재평가되면서 증권사들도 재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설치 과정이 생략된다는 점과 다양한 정보를 큰 화면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두드러진 것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KB증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종합재산신탁서비스인 'KB 인생 신탁'과 관련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양사는 'KB 인생 신탁'을 통해 다양한 법률·세무 이슈를 상시적으로 해결하고, 향후 신탁업 혁신방안 개정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왼쪽부터)KB증권 전장현 고객자산전략부장, 김민수 고객자산운용센터장, 윤만철 고객솔루션총괄본부장 및 김앤장 법률사무소 허영만 변호사, 이학진 변호사, 은정민 변호사가 업무협약식을 기념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KB증권

한투증권 홍콩법인, 필리핀 부동산개발사 채권 발행 주관

지난달 말 달러채 발행 성공적 마무리 만기 5년·발행금리 달러 기준 9% 수준

한국투자증권은 홍콩법인 'KIS Asia'를 통해 필리핀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비스타랜드(Vista Land & Lifescapes Inc.)'의 5000만달러(약 690억원) 규모 글로벌본드 발행을 주관했다. 국내 증권사가 필리핀 현지 기업의 글로벌본드 발행을 주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달러채(Reg S)발행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일 밝혔다. KIS Asia와 글로벌 투자은행 HSBC,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이 공동 주관사로 참여했으며 채권 만기는 약 5년, 발행금리는 달러 기준 9.375% 수준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22일 비스타랜드의 3억달러 규모 달러채도 주관 발

행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당시 발행액의 두 배가 넘는 주문이 몰리며 크게 흥행하면서 이번 증액 발행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기존 발행 물량까지 총 3억5000만달러 규모의 채권이 시장에서 거래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월 '몽골 국책 주택금융기관(Mongolian Mortgage Corporation)'의 달러채도 발행한 바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키움증권, 7월 해외주식 약정금액 25.8조

월 약정금액 역대 최고치 경신

키움증권은 올해 7월 해외주식 약정금액이 25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직전 최고치는 지난 3월의 18조4000억원이다. 약정금액은 해외주식을 매수 및 매도한 금액의 합산이다.

키움증권 계좌로 해외주식 투자에 나선 개인투자자가 가장 많이 거래한 종목은 디렉시온 테일리 세미콘더터 볼 3배 ETF(SOXL)다. 이어 테슬라(TSLA), 엔비디아 2배 레버리지 ETF(NVDL)가 뒤를 이었다. 20대 투자자가 가장 많이

거래한 종목은 반도체 레버리지 3배(SOXL)였으며, 2위는 테슬라 2배 레버리지(TSL), 3위는 테슬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보유잔고 기준으로는 테슬라가 가장 많았다. 이어 엔비디아, 나스닥 3배 ETF(TQQQ) 순이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미국주식 투자하는 수요는 20대를 비롯해 전 세대에 걸쳐 증가하는 추세다. 키움증권은 해외주식거래대금 3년 연속 1위 증권사로서 차별화된 주문 톨과 안정적인 인프라로 트레이딩, 배당투자, 자동주문 등 모든 형태의 투자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진화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